

캠버리 촬영에 “불법이다, 감옥 간다” 으름장

캠버리 관계자 행사장에서 유튜버 제지하고 카메라 압수해 기성 언론도 캠버리 현장 취재 난관 빚어...‘언론 통제’ 논란

캠버리 행사장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유튜버가 관계자에게 제지당한 가운데 캠버리 조직위가 기성 언론의 취재권 역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 채널 ‘고도수 생존기’를 운영하는 유튜버가 캠버리 행사장에 출입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적 맞추기’ 게임을 하던 중 관계자로부터 제를 당하는 모습이 지난 6일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관계자는 “불법이다, 너는 감옥에 간다”고 말하며 유튜버를 센터로 이동시켰다. 해당 유튜버는 동남아 혼혈로 전 북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다. 그는 ‘제가 어느 나라 사립인지 맞추면 5000원을 드립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다니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유튜버는 “현금만 사용할 수 있는 상점도 있어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반응도 좋

았다”고 말했다.

유튜버를 제지한 센터 담당자는 “돈을 거는 방식은 사행성을 띠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캠버리 축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 단순 유튜브 촬영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촬영 장비인 고프로를 압수했다. 유튜버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이어가자 담당자는 “나 찍은 거 빨리 삭제해요”라고 말했다.

실랑이가 이어지자 유튜버는 부안군청에 전화로 문의했다. 촬영을 금지하는 규정에 관해 문자 부안군청은 “적어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남겼다고 한다. 유튜버는 “담당자들이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조차 극도로 싫어했다”며 “외국 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축제는 나쁘지 않았는데 (담당자와) 실랑이하며 감정 소모가 컸다”고 밝혔다.

기성 언론의 캠버리 현장 취재도 난관에 부딪혀 왔다. 캠버리 조직위원회는 행사 시작 당시에 ‘델타 구역’ 취재를 허용했지만 돌연 접근을 제한했다. 지난 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약속한 에어쇼 현장 취재도 갑자기 금지됐다고 한다.

기자들이 반발하자 조직위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취재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항의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참가자들의 개별 인터뷰도 제한하고 있다.

지난 4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캠버리 관계자가 동석한 채 진행된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은 ‘사위장, 화장실 사용에 문제가 있지만 재미있는 활동이 있으니 상관없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카우트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훌륭하다’ 등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인터뷰가 끝난 뒤 한 참가자가 기자에게 따로 찾아와 “관계자가 같이 있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며 자신의 발언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준비로 망신살 캠버리병원, K의료지원체제로 체면치레

대회 첫날부터 치료공간 부족과 의료진·약품·시스템 부재 곤혹 전국 의료진 도움 손길...전북 내 의료진·약품지원 등으로 극복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의 최고의 수준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지만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버리 조직위원회의 부실한 준비로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망신살이 뻗었다. 새만금 캠버리병원원이 이야기다. 하지만 매번 현장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전국의 의료인들의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자존심은 겨우 지킬 수 있었다.

지난 1일부터 진행 된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버리 내 부지에 캠버리병원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해 수백명의 대원들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개영식이 진행되는 중에도 100여명이 쓰러졌다.

물려드는 환자들로 캠버리병원원도 복채통을 이뤘다. 밀려드는 환자들로 사전에 마련된 치료점상은 부족해 의자와 의자를 연결하거나 테이블 위에 누워 수액을 맞았다.

캠버리 조직위는 폭발하는 온열질환자로 인해 의료진부족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의료진을 거부

하는 사태까지 만들어 위기를 자초했다.

전북의사협회 등이 의료봉사형태로 부족한 캠버리 현장의 의료인력 수급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조직위는 “하루이틀 하는 의료진은 필요 없다”고 봉사를 거절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의 부재였다. 캠버리병원원은 치료약 등 관리직원의 부재로 인한 치료약 재고량 수요 예측이 불가능했다. 사전에 준비한 약품재고를 미리 조절하지 못해 캠버리 조직위는 뒤늦게 약품 확보에 나설 정도였다. 이 같은 상황은 새만금에서 캠버리가 사실상 모두 종료될 때까지 발생했다. 또 환자의 진료기록 등 기록을 통한 데이터 축적 시스템 부재 등도 지적됐다.

환자 치료에 대한 약물 투약, 처치불가능 약물 투약여부 등이 진료기록이 한 개도 없어 그때그때마다 땀질식 처리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이어졌다는 것. 병원 내부 의료진의 주장에도 캠버리조직위는 “이곳은 정식병원이 아니다”, “우리는 봉사활동을

한다”, “외국인들이 약물을 더 잘안다”는 등의 무책임한 말로 사태를 더욱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북을 넘어 전국의 의료진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국가의 품격을 보여줬다. 위기 때마다 지역감정을 뛰어넘어 한걸음에 달려가는 코로나19 당시 K의료지원체제의 강점을 보여줬다.

전북의사협회와 도내 주요대학병원들은 캠버리병원에 비상용 수액 등을 보냈으며, 한차례 거절당했지만 문제를 뒤늦게 인식한 캠버리조직위의 허가로 전북의사협회의 의료봉사를 수용했다. 전주대자이병원도 의료진과 이동형 검진서비스를 현장에 파견했다.

타 지역의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도내 주요병원들이 의료진을 파견했으며, 대한간호사협회도 캠버리병원에 간호사들을 파견했다.

조직위의 부실·방만운영 속 파행을 겪은 새만금 캠버리. 이러한 상황 속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캠버리병원의 위기가 계속됐지만, 전북을 넘어 한국의 의료지원체제가 마지막 국력의 자존심을 지켰다.



인사동 찾은 노르웨이 스카우트 9일 세계스카우트캠버리에 참가한 노르웨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을 둘러보고 있다.



여가부, 캠버리 진행상황 브리핑 취소...설명도 생략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캠버리’ 브리핑을 10여 분 앞두고 사전 설명없이 돌연 취소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늘 11시30분에 예정됐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브리핑이 사정상 취소됐다”고 밝혔다.

당초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에 세계캠버리 운영 상황과 캠버리 체험 행사 프로그램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캠버리 비상대책반 회의가 늦어지면서 브리핑은 11시 30분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브리핑 10분을 앞두고 별 다른 설명없이 다시 한번 취소됐다.

여가부는 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조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캠버리 조기 철수 사태에 대해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해 못매를 맞았다.

브리핑은 여가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진행했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가동된 ‘캠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의 간사 부처다.

스위스 캠버리 수송버스, 빗길 시내버스와 충돌

순천에서 스위스 캠버리 대원들을 태운 대형버스 가 시내버스와 충돌해 대원 3명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

9일 전남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6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버리에 참석한 스위스 대원들을 태운 대형 버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시내버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스위스 대원 3명과 시내버스에 탑승객 5명 등 총 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

겨졌다.

스위스 대원을 태운 버스엔 학생 36명, 인솔자 1명, 운전기사 1명 등 총 38명이 타고 있었다.

캠버리에서 퇴소한 대원들은 전남 사고 지점과 약 1km 떨어진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에 머문 뒤 서울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가던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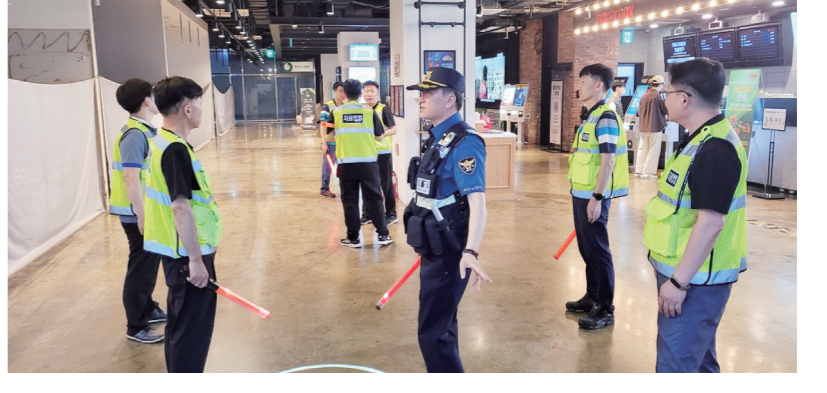
화순소방, '구급지도의사' 위촉식 개최
화순소방서는 지난 8일 오전 구급 서비스 전문성 확보와 구급 품질 향상을 위해 이영민 화순고려병원장을 소방서 구급지도의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광주 동부소방,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홍보 실시
광주 동부 소방서는 화재 경각심 제고와 화재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나주경찰, 다중밀집지역 특별범죄예방활동 실시
나주경찰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다중밀집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치안안전을 위해 8.7(월)부터 특별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광양경찰, 흥기 난동 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 추진
광양경찰서는 최근 '문지마 흥기 난동'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여수해경, 중질성 선저폐수 유출로 해상 방제 작업 실시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B정박지 해상에 유출된 약 660L의 중질성 선저폐수의 해상 방제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완도해경, 제6호 태풍 '카눈' 대비·대응단계 돌입
완도해양경찰서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예상 경로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대비·대응단계에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